

일하며 사랑하며

권해영 / 지음

잠깐 꽃구경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, 여름
이 대문을 열고 꼭차게 들어서 있었다.
아니 벌써...!

어느덧 더운 한계절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.
너무 성급한것 같지만, 조금후면 가을이 또
똑똑 문을 두드릴것이다.

월드컵의 열기, 장한 태극전사, 열렬한 붉은
악마 온국민의 하나됨을.

세계가 깜짝 놀라하는 모습을 한달여동안 지
켜보면서 우리들은 그야말로 거의 흥분의 도가
니가 아니었던가?

가는곳마다, 앉아서나, 설때에도 우리들은
어느새 축구 해설가로 변신하고 있었다.

일찌기 본적 없는 우리들의 하나된 모습. 마
음 뿌듯하게 저러움을 다른나라 사람들은 알기
나 할까? 하지만, 이제 그열기와 하나된 저력
을 경제시너지로 보내야 할것이다.

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사랑하지 않는
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다.

온갖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!
그들은 소리없이 그 삶을 진정 사랑할 것이
다. 지독히 힘들고, 지쳐있는 영혼이라도 자신
의 삶이기에 소중한 것이다.

무엇인가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도 삶에 있어
서 행복을 느낄수 있기때문이 아닐런지..

세월의 흐름도, 눈가의 잔주름도 지나가는
삶속에 한자락이 아니던가?

그러하듯 삶을 사랑하기에 애타게 갈망하는
것이다. 아득한 어둠만이 살아있는 그곳, 쓰라
린 기억들로 색칠해진 그곳. 외로움에 깊게 싸
여, 그리움에 감싸여 홀로 우두커니 서있었던
나!

하지만 난 슬퍼하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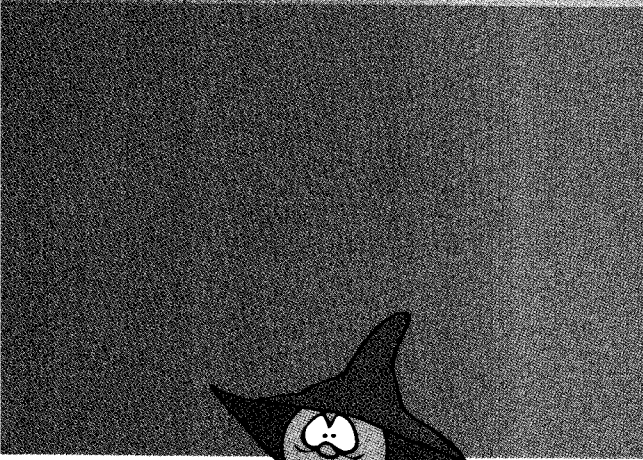
싱그런 하늘의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처
럼, 푸근한 편안함이 되어 나의 가슴에 전해오
는 가족들의 새털같은 손길이 있기에

이제 삶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힘찬 날개짓
을 하련다. 하늘의 무지개를 볼때마다, 내가슴
이 설레었듯이...

좋은것만 추구하고, 불만과 투정만 하던 나.

뒤돌아 생각하니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
게 기다리는 곳에 진정 따스한 마음 보낸적 없
던, 교만과 욕심으로 뒤엉켜져 있는 나.

아낌없이 삶을 사랑하기에 베푸리라. 하지
만, 베풀다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가?



당연히 있으면 나누어야 되는 것이 아닌
가....

이제 삶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아낌없는 도
움을 주리라. 더 시간이 흘러가기전에.

나무줄기는 노력 때문에 자라나고, 나무뿌
리는 인내 때문에 깊게 뿌리를 박을 수 있다고
한다.

삶을 너무너무, 지독히 사랑하기에 공부하
고, 계획도 세우고 기다리고, 노력하고...

늦은것 같지만, 조금이라도 젊어서 사랑
을 나누어 줄 것이다.

그리움에 지쳐있어도, 기다림에 지쳐 있어
도, 나눌수 있는 삶을 위하여!

들뜬 꽃잎에 내리는 이슬처럼, 마른입술 메
마른 나의 가슴을 적시는 사랑의 물!

옛 추억, 옛 풍경이 그러하였고, 정겨움이 더

불혹을 한참 넘기였건만, 나를 뒤돌아 볼때 아
름다운 시간들이 웃을 수 있는 정감의 향기로
술술 피어오르게... 진정 삶을 사랑하리다.

시간이 흐를수록 삶에 대한 느낌과 애착이
더욱 진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.

그리워질 내나이.

불혹을 한참 넘기였건만, 나를 뒤돌아 볼때
아름다운 시간들이 웃을 수 있는 정감의 향기
로 술술 피어오르게... 진정 삶을 사랑하리다.

시간이 흐를수록 삶에 대한 느낌과 애착이
더욱 진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.

매일 맞이하는 아침이건만, 나날이 새로운
느낌으로 다가서는 사랑스런 삶!!!

진정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,
입으로 눈빛으로 말하리라.

내가 내삶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
나가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.

하루하루의 삶이 갈수록 더욱 진하게 느껴
진다. 교만하지 않고, 스스로 겸손한자 되어 내
가 삶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어웃도 사랑하리
라. 여름이 가기전에, 가을이 오기전에.

굽이굽이 휘몰아치는 계곡보다도 더 힘찬 마
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리쳐본다.

사람들이여!! 삶을 사랑하라. 그리고 사랑을
나누자! 라고..... **PRANK**